
부록 I :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 현황

1. 규모

캘리포니아주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2013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575억 달러이며 자동차보험은 229억 달러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35%를 차지한다. 그 이외에 주택보험 (Homeowner's Insurance) 70억 달러, 근재보험 103억 달러 규모이다. 자동차보험시장은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 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04억 달러, 상업용 자동차보험시장 규모는 25억 달러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배상책임제도는 과실책임주의(Tort System)이나 개인신체상해(Personal Injury Protection) 담보는 노폴트제도를 따른다. 노폴트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체상해를 보상하는데 개인용 노폴트를 인수하는 회사는 전혀 없고 상업용 노폴트의 경우도 20개 회사에 불과하다. 상업용 노폴트 손해율이 음의 부호를 갖는 이유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험금이 환입되었기 때문이며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보험담보는 크게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그리고 각각에 대해 노폴트와 책임보험(이상 대인담보), 대물보험(Physical Damage Prote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가 160여 개인데 상업용 자동차보험 회사는 약 250여 개이다.

〈부록 표 I-1〉 2013년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보험 담보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회사 수	원수보험료	경과보험료	손해율
개인용 노폴트	0	0	0	0.0%
개인용 책임보험	166	11,718.3	11,483.4	65.45%
상업용 노폴트	20	0.164	0.148	-53.73%
상업용 책임보험	257	1,939.2	1,888.2	63.71%
개인용 대물담보	163	8,727.3	8,638.6	60.03%
상업용 대물담보	248	588.1	527.6	63.03%
개인용 합계	-	20,445.6	20,121.9	-
상업용 합계	-	2,497.4	2,416.0	-

자료: NAIC(2014).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AM Best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전체 상업용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69억 달러이고 캘리포니아주 262억 달러, 텍사스주 245억 달러이다.²⁵⁾

2. 개인용 및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운전자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수단이다.²⁶⁾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유형, 사용 목적, 소유관계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이 아니니 개인용 자동차, 픽업트럭이나 승합차(Van) 등에 대한 보험인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영업(혹은 사업) 목적으로 운행하는

25) 집계방식과 대상에 따라 A. M. Best와 NAIC의 집계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2014년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94억 달러이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9억 달러임. 그 다음이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주 순임.

26) 일반적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운전자의 재정상태 확인 수단으로 자동차보험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 35,000달러의 현금 예치(Cash Deposit), 자동차국이 발행하는 자기보험증서(Self-Insurance Certificate), 캘리포니아에서 사업면허를 교부받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35,000달러 상당의 Surety Bond 등도 있음.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자동차보험(Business Auto Insurance), 트럭보험(Truck Insurance),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픽업트럭 보험(Pick-up Truck Insurance), 견인차량보험(Tow Truck Insurance), 승합자동차보험(Van Insurance), 덤프트럭보험(Dump Truck Insurance) 등이 있다.

개인용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담보(Coverage)는 책임(Liability), 자손(Comprehensive Coverage), 교통사고로 인한 차차 손해(Collision), 무보험 차량(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등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신체상해 및 사망, 사고 피해자의 차량 손해보상을 모두 포함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나머지 담보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담보별 최소 가입 한도는 주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체상해 및 사망의 경우 1인 15,000달러, 2인 이상 30,000달러, 사고피해자 차량손해보상 5,000달러이다. 반면 상업용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신체상해 및 사망, 사고 피해자의 차량 손해보상 한도가 합쳐진 단일 한도(Single Limit)인데, 예를 들면 “신체상해 및 상해/사고 피해자 차량 손해보상 합계 75,000달러” 등으로 규정된다.

상업용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노출된 리스크가 더 크고 운송화물의 위험성 여부(위험한 화물인지 여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보상한도는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분포한다. 따라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주법(State Law)의 규제를 받지만 주간 승객,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한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연방법이 규제한다. 연방법 규제 가운데 하나로 상업용 자동차보험회사는 연방운송안전행정부(FMCSA;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에 상업용 자동차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FMCSA는 주간(Interstate) 운송사업자가 위험한 물품(Hazardous Property)을 배송하는 경우에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하지 않은 화물일 경우 화물의 무게에 따라 최소 배상책임 한도가 결정된다. 여객수송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는 수송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7인 이하일 경우 75만 달러, 8인에서 15인일 경우 150만 달러, 16인 이상일 경우는 500만 달러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제당국은 공공시설물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이다.

〈부록 표 I-2〉 미국의 화물 및 여객 운송사업 유형별 최소 배상책임한도

(단위: 달러)

Regulated Carrier Category	최소 배상책임 한도
주간(Interstate) 일반화물 운송	750,000
기름 등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 운송	1,000,000
기타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	5,000,000
15인 이하 상업용 여객 수송	1,500,000
15인 초과 상업용 여객 수송	5,000,000
10,001파운드 미만 상업용 일반화물 운송	300,000

자료: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14).

캘리포니아주는 요율 사전승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제도는 과실책임법(Tort Law)을 따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 경쟁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의 2012년 집중도는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비해 낮은 40% 내외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5%,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35%로 나타났으며 과거 5년간 진입 및 퇴출 보험회사 수도 상업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더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의 보험회사가 약 160여 개,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보험회사가 250여 개임을 고려하면 두 시장의 진입 퇴출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I-3〉 2012년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 성장성, 수익성, 상위 4개사 점유율

(단위: 개)

구분	상위 4개사 M/S	과거 5년간 진입 기업 수	과거 5년간 퇴출 기업 수
개인용 책임보험	45.0%	12	15
상업용 책임보험	36.3%	23	22
개인용 대물담보	46.5%	9	12
상업용 대물담보	34.9%	24	18
개인용 합계	45.5%	13	17
상업용 합계	35.0%	25	24

자료: NAIC(2014).

원수보험료 규모가 큰 책임보험 담보의 개인용과 상업용 시장 주요 보험회사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용의 경우 Farmer's Insurance, State Farm, Allstate가 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업용의 경우 Liberty Mutual, Nationwide, Traveler's, Zurich, Progressive, AIG, 일본 동경해상이 44.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재보험회사인 Zurich와 일본 동경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회사들이다. 한편 일본 동경해상은 2008년 미국 필라델피아 손해보험을 26.6억 달러에 인수하며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였고 시장점유율이 상위권이다. 이들 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보험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Liberty Mutual의 경우 21개 소속회사를 두고 있고 Nationwide는 10개, Traveler's는 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나 소속회사가 1개인 회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가 여기에 속한다.

〈부록 표 I-4〉 2013년 캘리포니아주 주요 자동차보험 회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시장점유율 순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손해율
개인용 자동차				
Farmer's	1	13.5%	1,586.2	54.3%
State Farm	2	13.5%	1,582.1	63.0%
Allstate	3	9.3%	1,085.1	61.6%
Mapfre	24	0.5%	58.5	78.1%
Allianz	45	0.1%	12.2	40.6%
Tokio Marine	59	0.05%	5.8	72.1%
동부화재	71	0.01%	1.2	110.1%

〈부록 표 I-4〉의 계속

회사명	시장점유율 순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손해율
상업용 자동차				
Liberty Mutual	1	9.2%	177.4	54.1%
Nationwide	2	8.2%	158.2	64.6%
Traveler's	3	7.2%	139.7	48.9%
Zurich	4	6.2%	120.4	53.8%
Progressive	5	6.2%	119.2	74.6%
AIG	6	4.4%	85.7	59.3%
Tokio Marine	9	2.8%	53.5	65.4%
동부화재	39	0.7%	13.6	60.2%
Allianz	43	0.5%	9.4	86.3%
삼성화재	59	0.2%	3.5	56.1%

자료: NAIC(2014).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용 자동차와 상업용 자동차 보험회사의 규모와 수익성 간의 관계이다. 〈부록 표 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원수보험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손해율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러한 관계가 반드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전역의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관측할 수 있다. 다음의 〈부록 표 I-5〉는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시장 상위 25개 회사의 규모와 수익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표 I-5〉 2014년 미국 대형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단위: 백만 달러, %)

회사명	원수보험료	합산비율	세전 ROE	매출액 대비 세전 이익률
Travelers	1,930	94.8	19.6	18.4
Progressive	1,850	93.9	24.7	8.8
Nationwide	1,657	105.4	1.1	0.9
Liberty Mutual	1,524	106.4	2.0	1.4
AIG	1,020	113.0	4.8	6.8
Berkshire	876	91.6	10.0	40.4

〈부록 표 I-5〉의 계속

회사명	원수보험료	합산비율	세전 ROE	매출액 대비 세전 이익률
Old Republic	824	110.4	1.2	1.5
Auto-Owners	603	99.9	5.8	7.9
W-R Berkley	557	95.1	14.5	16.2
Philadelphia	556	92.9	14.7	21.5
Cincinnati	547	98.3	9.9	11.5
Hartford	527	100.4	8.4	12.5
Zurich	513	97.5	10.8	18.4
State Farm	451	103.4	3.4	4.2
Erie Insurance	418	101.6	5.1	6.3
Great American	391	92.8	20.2	16.9
Allstate	353	97.6	11.8	7.5
Selective	347	101.3	10.0	7.0
EMC Insurance	339	104.0	3.6	3.2
Hanover	338	103.4	6.3	3.3
CNA	332	115.5	8.8	15.7
Sentry Insurance	308	105.9	6.2	12.9
Westfield	299	100.3	7.9	7.6
Munich Re	297	91.4	14.0	18.0
QBE	272	102.6	-2.4	-1.6
상위 25개	17,142	-	-	-
전체	25,831	-	-	-

주: 합산비율, 세전 ROE, 매출액대비 세전영업이익의 비율은 5년 평균임.

자료: A. M. Best(2015).

대형 상업용 자동차보험회사들 가운데 다수가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5년 평균 세전 ROE와 5년 평균 합산비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Nationwide는 시장점유율 3위이지만 5년 평균 세전 ROE는 1.1%에 불과하고 Liberty Mutual과 AIG의 경우도 2.0%와 4.8%에 불과하다. 반면 Progressive와 Travelers는 19.6%와 24.7%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Great American P&C와 Munich American Holdings의 경우 20.2%와 14.0%를 기록하고 있어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시장점유율 등 규모와 수익성 간에 관계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63.8%를 차지하는 상위 25개 회사들 가운데 두 자릿수 수익성을 세전 ROE를 기록한 회사는 여섯 개 회사에 불과하다.

4. 손해율과 수익성

2013년 손해율은 개인용 63.1%, 상업용 63.5%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경과보험료 대비 보험영업이익²⁷⁾ 비율은 개인용 -1.8%, 상업용 -9.6%이며 투자영업이익을 고려한 보험거래 이익의 경과보험료 대비 비율은 개인용의 경우 1.1%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상업용의 경우 -1.9%를 기록하고 있다.

〈부록 표 I -6〉 2013년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 수익성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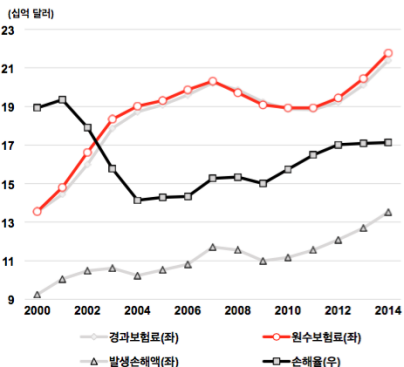
구분	경과보험료 대비 비율					순자산 대비 이익률
	발생 손해액	손해 사정비	일반 관리비	판매비	보험영업 이익	
개인용 책임보험	65.5	13.3	5.7	17.7	-6.0	2.8
개인용 대물담보	60.0	9.6	5.5	17.2	3.9	7.7
개인용 합계	63.1	11.7	5.6	17.5	-1.8	4.5
상업용 책임보험	63.7	14.6	7.3	21.8	-9.9	2.6
상업용 대물담보	63.0	10.3	7.9	24.7	-8.6	-0.9
상업용 합계	63.5	13.6	7.4	22.4	-9.6	2.1
자동차보험 합계	55.7	13.5	6.4	18.7	2.5	7.6

주: 진입 및 퇴출 기업 수는 과거 5년간 합계이며 수익성은 순자산가치 대비 이익률임.
자료: NAIC(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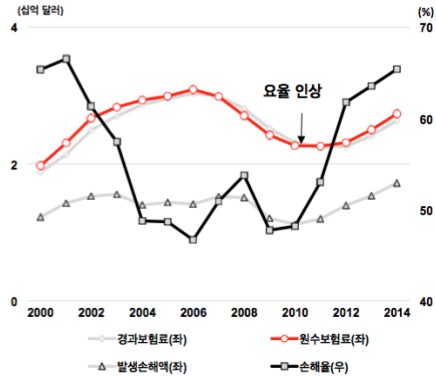
27) Underwriting Profits to Direct Premium Earned.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개인용과 상업용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00년 초부터 2004년까지 손해율이 하락하였으나 2004년 이후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손해율 변동성이 개인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상업용 자동차가 노출된 위험이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발생손해액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발생손해액은 2009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상승하고 있고,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률은 큰 변동이 없으나 발생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⁸⁾

〈부록 그림 I-1〉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부록 그림 I-2〉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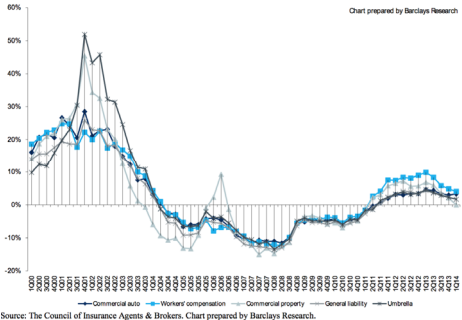


자료: 캘리포니아 보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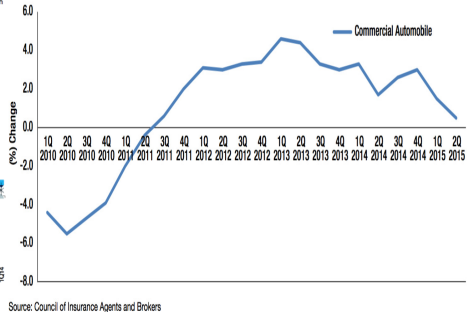
2009년 이후 손해율 상승의 다른 원인은 보험료 상승세 둔화이다. 미국의 상업용 보험 보험료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부록 그림 I-1〉참조).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보험료 상승세가 가속화되었으나 2013년 2분기 이후 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유는 경기회복 부진으로 상업용 자동차 보험수요 회복이 부진하고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요율경쟁 심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8) A. M. Best(2015, 12, 1), "Commercial Auto-Uncertainty Remains".

〈부록 그림 I-3〉 미국의 담보별 상업용 보험료 변화율 추이



〈부록 그림 I-4〉 상업용 자동차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A. M. Best.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2011년 25.4%에서 2014년 23.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손해사정비율도 12.8%에서 13.1%로 소폭 상승하였다.

〈부록 표 I-7〉 미국 상업용자동차보험 시장 주요지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수보험료	3,554	3,508	4,104	4,706	5,083
손해액과 손해사정비	2,772	2,607	2,875	3,376	3,602
순손해율	58.5%	58.9%	60.3%	60.9%	60.0%
손해사정비율	12.9%	12.8%	13.5%	13.2%	13.1%
판매비/일반관리비	963	942	1,033	1,159	1,188
판매비/일반관리비 비율	25.7%	25.4%	25.1%	24.6%	23.4%
연간 합산비율	97.2%	97.1%	98.9%	98.7%	96.6%

주: 진입 및 퇴출 기업 수는 과거 5년간 합계이며 수익성은 순자산가치 대비 이익률임.
 자료: NAIC(2014).

사업비 절대 금액은 2011년 9억 4,200만 달러에서 2014년 11억 8,8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보험료 상승의 영향으로 인한 원수보험료 증가 때문에 사업비율은 감소하였다. 사업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손해율 개선이 부진하여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연간 합산비율은 소폭 개선에 그치고 있다.

2013년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상업용 자동차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순자산대비 이익률은 4.5%,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자산대비 이익률은 2.1%로 나타났다. 순자산대비 이익률(Return on Net Worth)은 주식회사인 손해보험회사의 주주자본(Stockholder's Equity) 대비 수익성으로 정의되며 다른 산업의 주식회사 수익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²⁹⁾

반면 과거 10년간 평균 순자산대비 이익률은 상업용 10.65%, 개인용 10.28%로 나타나 상업용 자동차보험이 개인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용은 지난 10년간 평균 6% 증가하였으나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이유는 보험료가 2011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록 표 I-8〉 2012년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 성장성과 수익성

구분	과거 성장률		과거 10년 평균 수익성
	3년	10년	
개인용 책임보험	1.7%	6.0%	9.04%
상업용 책임보험	2.5%	-12.4%	10.08%
개인용 대물담보	4.0%	5.6%	12.61%
상업용 대물담보	3.3%	-31.7%	12.82%
개인용 합계	2.7%	6.0%	10.28%
상업용 합계	2.6%	-17.4%	10.65%

주: 수익성은 순자산가치 대비 이익으로 정의됨.
자료: NAIC(2014).

29) 보험회사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서 부채의 대부분은 원수보험료와 관련되어 있음. Masterson, E. Norton(1978), "Measurement of Rates of Return for Casualty-Property Insurance Companies", Casualty Actuarial Society.